

프랑스 중남부에 위치한 부아부세 영지와 고성

# 세상의 모든 디자인

‘Design is everywhere’. 그렇다. 디자인은 어디에나 있고, 모두 디자인을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디자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외형미나 기능을 갖춘 물건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프랑스 부아부세 디자인 워크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TEXT KANG BO RA PHOTOS DOMAINE DE BOISBUCHET, IVY TZAI

우리 때로 너무 진지하다. 사회 시스템과 규율에 맞춰 살아 보면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는 희미해지고 무엇보다 사는 재미가 없어진다. 이것이 기발한 창의력과 독창적인 사고가 필수 덕목이라고 부르짖는 이 시대의 아이러니 아닐까? 디자이너라면 더욱 치명적이다. 모던 디자인의 전설 찰스 임스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에게 즐거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Take your pleasure seriously).” 임스 부부와 절친했던 알렉산더 폰 페게작(Alexander von Vegesack) 대표는 찰스 임스의 이러한 관점을 부아부세 디자인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프랑스 중남부에 위치한 부아부세(Domain De Boisbuche)라는,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영지를 구매한 후 매해 여름 워크숍을 이어온 지 올해로 25

주년이 됐다. 일흔을 훌쩍 넘긴 그는 누군가의 표현대로라면 ‘디자인계의 살아 있는 화석’ 같은 존재다. 유명한 디자인 컬렉터이자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설립 멤버였으며 20여 년 동안 관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 많은 디자인 어워드와 전문매체는 그의 평론과 의견을 지침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런 그가 이곳에 부지를 사서 일종의 디자인 커뮤니티 겸 워크숍을 열겠다고 했을 때 지인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친구들은 이런 일은 억만장자나 하는 거라고 했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나의 가구 컬렉션 중 일부를 팔아야 했지만, 모던 디자인이 태동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지켜봐온 나의 경험과 디자인의 가치를 전하는 곳을 만들겠다는 꿈을 마침내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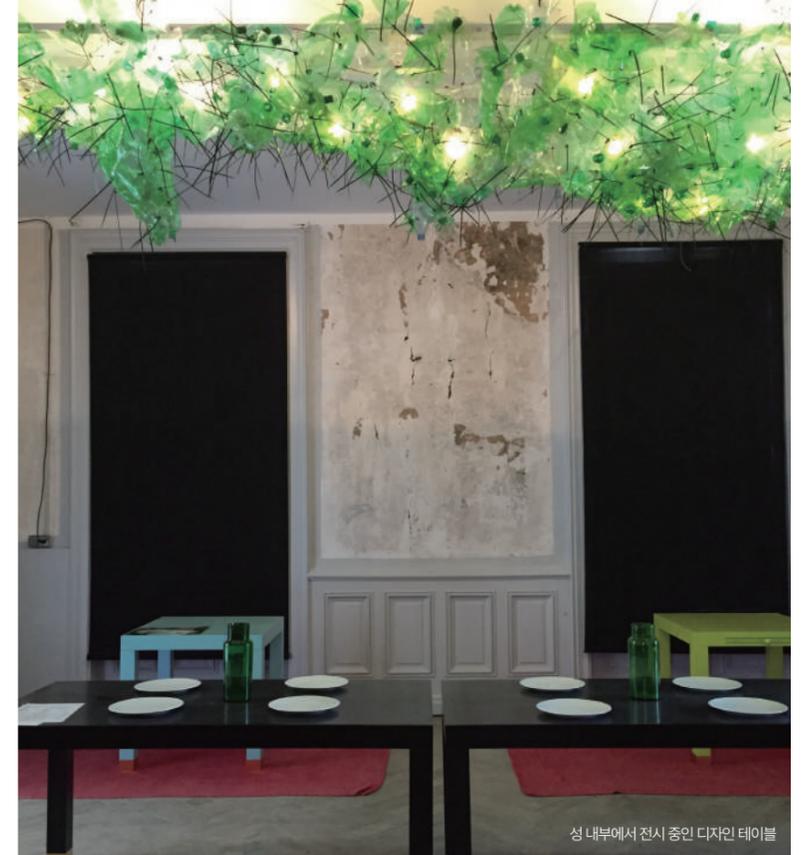


부아부세 워크숍 대표인 알렉산더 폰 페게작

말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목초지,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면 언제든 뛰어 들 수 있는 호수, 나무로 우거진 산책길, 16세기부터 이어온 영지 한 가운데 우뚝 선 고성... 회색빛 도시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매끈하게 잘 빠진 물건들 속에서 생활해오던 참가자들은 대부분 부아부세의 자연에 이내 매료되고 만다. 알렉산더 대표는 “디자인의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반, 또 다시 차를 타고 1시간이 걸리는 거리임에도 해마다 내로라하는 유명 디자이너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부아부세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아부세 워크숍 프로그램은 6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 단위로 한 주에 2-3개 팀이 함께 생활하며 저마다의 주제에 따른 디자인 결과물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참가자들은 디자인에 대한 생각과 태도, 때론 고민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자신을 한 뼘 성장시킬 기회를 갖는다. 게다가 평소 동경하던 동시대의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와 매일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워크숍 프로젝트에 대한 지도를 받는 일은 분명 차고 넘치는 경험일 것이다. 현재까지 론 아라드, 제스퍼 모리스, 시게루 반, 캄파나 형제 등 쟁쟁한 스타 디자이너들이 가까이 이곳을 찾았다.

부아부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특색 있는 디자인 워크숍으로 꼽히고 있다. 알렉산더 대표는 종종 참가자들로부터 부아부세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으며, 이제까지 가장 중요롭고 있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며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는다고 했다. 그런 순간이야말로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이끌어오게 만든 힘이다.



성 내부에서 전시 중인 디자인 테이블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참가자



전문 공구로 가득한 작업실 풍경



모두가 토론하며 배우는 것 부아부세의 가장 큰 특징이다

## Design and the Community

올해 부아부세 워크숍의 대주제는 ‘Design and the Community’다. 동시대 디자인이 이 사회와 문화에 어떤 의미이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첫 번째 워크숍은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의 ‘Fireplace for Boisbuche’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동시대 가장 건축가의 워크숍에 참가자가 유난히 많이 몰렸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이외에도 하이메 아온, 베선 로라 우드, 마르첼로 로젠바움, 시가 하이미스, 고 하세가와 등 지금 가장 주목받는 수퍼 디자이너들이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우리나라 디자이너로는 장응복 선생이 초빙됐다. 가구에서부터 장난감, 설치, 텍스타일, 안무까지 다양한 분야로 펼쳐진 워크숍의 하이라이트와 디자이너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물  
텍스타일 하우스



콜롬비아 건축가 시몬 벨레즈가 지은  
밤부 파빌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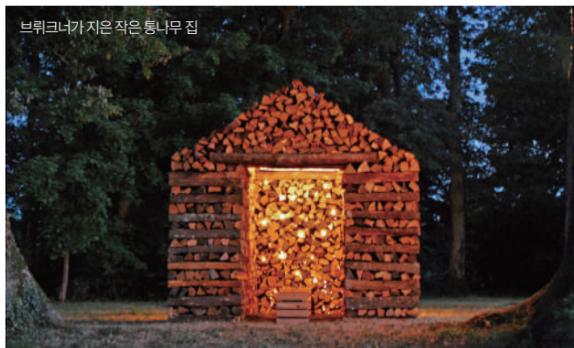
### 부아부세 건축 투어

디자인 컬렉션 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고성 외에도 예전엔 물레방아, 헛간, 팜하우스로 사용하던 1800년대 건물들은 그 자체로도 볼거리다. 현재는 숙소와 카페, 컨퍼런스 등의 용도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든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꾸준히 보수와 확장 작업을 거치면서 전문적인 작업실과 도자기 및 유리 가마 등도 갖췄다.

무엇보다 부지 곳곳에 세계적인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세운 건축물은 그 자체로 건축 및 디자인 교과서다. 시계루 반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지은 건축으로 꼽히는 종이 파빌리온, 독일 출신의 건축가 마르쿠스 하인슈도르프가 중국 엑스포에서 선보인 건축 설치물을 그대로 옮겨온 밤부 파빌리온, 독일 건축회사 브뤼크너&브뤼크너 아키텍트가 지은 통나무집 등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브라운 대학교와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의 건축학과 공동 프로젝트로 완성한 태양광 패널 친환경 건축 '텍스타일 하우스'가 있다.



시계루 반의 종이 파빌리온 내부



브뤼크너가 지은 작은 통나무 집



스페인 출신 디자이너 하이메 아온



세미나 참가자가 만든 나무 장난감



참가자가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나무의 장난감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워크숍



올해 워크숍을 기념하는 하이메 아온의 스케치

### 현재 가장 핫한 슈퍼 디자이너 하이메 아온의 <Play Wood> 세미나

스페인 출신 디자이너 하이메 아온은 세계를 무대로 가장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슈퍼 디자이너 중 한 명이다. 프리츠 한센, 마지스, BD바르셀로나, 카시나 등 유명 가구 브랜드와의 협업뿐 아니라 최근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담은 아트 퍼니처를 파리와 런던 갤러리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부아부세 워크숍에는 올해로 네 번째로 초청됐는데 올해는 조금 더 특별했다고 한다. "TV, 휴대폰, 아이패드 등 오늘날 아이들은 하루 종일 기계와 함께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면 나무는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재료입니다. 그동안 도자를 주제로 워크숍을 해왔지만 이번엔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은 디자이너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할 만한 스토리가 디자인에 녹아 들어가야 해요."

그는 워크숍 기간 동안 어린 두 아이와 함께하면서 참가자들이 만든 장난감을 즉석에서 가지고 놀게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치 휴가를 떠난 것처럼 자유롭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워크숍에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물론 워크숍의 주제는 있죠.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이러한 최소한의 틀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예요. 정해진 틀과 사고에 따라 살아온 참가자라면 처음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연을 느끼고 재료를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서히 보일 거예요. 이런 과정이야말로 최고의 경험이 아닐까 합니다."



시가 하이미스(좌)와 이케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이나 스펀벨름(우)

**시가 하이미스 <Cooking, Eating, Designing>**

이케아의 주방 디자인 부문 총괄 디자이너인 시가 하이미스 Siga Heimis는 15년 전 부아부세 워크숍의 참가자로 시작해 몇 년 후 튜더로 초청받은 후 거의 매해 부아부세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만큼 그 누구보다 부아부세 스피릿을 이해하고 사랑한다. "중요한 것은 '디자인' 그 자체가 아니에요. 결국 디자인은 사람을 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입니다. 세계화된 세상에서 유의미한 디자인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저마다 각자 다른 결론을 내릴 테니까요." 동시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고 이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을 내는 이케아는 올해의 테마를 '푸드'로 정했다. 시가는 참가자들과 함께 요리부터 식사하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디자인하고자 제안했다. 패브릭, 그래픽, 가구,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중에는 대만에서 온 요리 전문가도 있었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근사한 디너파티를 선사했다. 허브가 들어 있는 인비테이션, 대나무로 만든 와인잔, 나무 숲에 설치된 씬을 위한 바 등 '경험'이랄로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가자가 만든 샐러드 서빙 볼

디너 파티 형식으로 펼쳐진 시가의 워크숍 프레젠테이션



모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새장

**스튜디오 스와인 <Vernacular Design and Modern Invention>**

스튜디오 스와인 Studio Swine는 영국 왕립예술학교 석사 과정 중 만난 예술가 겸 디자이너 알렉산더 그로브스와 건축가 아자사 무라카미가 결성한 듀오 디자인 스튜디오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한 후 디자이너로 영역을 넓힌 알렉산더 그로브스는 이번 워크숍에서 부아부세를 둘러싼 자연을 이용해 새를 위한 파빌리온을 만들어볼 것을 제안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머물며 영감을 받아 수많은 캔을 모아 이를 녹여 오브제를 만든 캔 시티, 세계 최대의 인모 수출국인 중국에서 머리카락과 레진을 이용해 신비롭고 예술적인 가구를 디자인한 '헤어 하이웨이' 등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작업을 펼쳐온 스와인의 디자인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인류학에 관심이 많아요. 인간과 환경, 문화를 관찰하고 이로부터 재료와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받습니다. 결국 디자인은 아이디어이며 때론 혁신이기도 하니까요." 스와인의 지도에 따라 부아부세 영지 곳곳에 작은 새집을 만든 참가자들은 때론 진지하게, 때론 유머러스하게 주제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둥근 달걀 모양에 이끼로 마무리한 새장에 많은 참가자들이 호응했고, 꼭 나무에 새집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다며 호수 안에 기다란 나무 조각을 설치한 참가자도 있었다. 특히 한 참가자는 매우 아름다운 시를 지어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낭독하기도 했다. 이미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가 희미해진 시대에 정형화된 방식에서 탈피해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출하는 재료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스와인과 함께 협업하고 있는 예술가 로버트 리버스(좌)와 알렉산더 그로브스(우)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결과물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조나 보케르

**조나 보케르 <Space, Motion and Community>**

뉴욕에서 활동하는 안무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조나 보케르 Jonah Bokaer는 단연 돋보이는 워크숍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다. 신비로운 음악이 커다란 핫간 안에 울려 퍼지고 조명과 거울, 줄을 이용한 미세한 움직임과 동작이 펼쳐지는 시간 동안 마치 짧은 현대무용 공연을 보는 듯했다. 재미 있는 점은 그의 워크숍 참가자 중 무용을 전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함께 워크숍을 찾은 작곡가 겸 뉴미디어 아티스트인 스타보로스 카스 파라토스 Stavros Gasparatos는 장소를 둘러싼 소리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어 조나의 안무에 힘을 더했다. 단순히 무용이 아니라 비주얼 아트와 디자인을 접목한 그의 방식은 구겐하임, 모마, 뮤지엄 오브 아트 & 디자인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저의 워크숍이 한 기간 동안에만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의 작업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올해 주제인 '디자인 & 커뮤니티'의 의미란, 공간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라는 관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5월이라는 시간은 안무를 짜고 공연을 기획하고 연습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조나는 매일 참가자들과 함께 즐기며 몰입할 수 있었고 이는 부아부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사람의 몸과 움직임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총체적이며 예술적인 디자인 경험은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프레젠테이션 중 한 장면



한편의 공연 같았던 프레젠테이션